

ISPE'92를 마치고 나서

홍 순 찬*

(*단국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1. 서론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경제란 최대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경제대국이니 경제입국이니 말들은 난무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기반의 마련이다. 우리대한전기학회도 전기계의 중지를 모으고 산업계와 학계의 구심점으로 전기기술의 혁신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전기계의 연구자들이 서로 학술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학술지 및 논문지를 발간하고 정기적인 학술발표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치루어진 ISPE'92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최한 것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손으로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더해지고 있다. 본 원고는 필자가 개인자격으로 ISPE를 마치고 나서 적은 행사일정과 소감이며 편의상 경칭은 생략한다.

2. 연혁

1988년에 박민호 교수와 당시 전력전자연구회 간사장이던 황영문 교수의 협의로 국제학술회의의 개최가 태동되었다. 다행히도 한국과학재단과 일본과학재단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으나 워낙 시간이 촉박하여 일본만을 상대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1989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1988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준비위원회에서 대회명을 ISP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ower Electronics)로 정하였으며 대회위원장에 서울대 박민호 교수, 조직위원장에 부산대 황영문 교수, 기술위원장에 한양대 임달호 교수, 집행위원장에 KIST 김광배 실장이 결정되었다. 또한 국내 학계 및 산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측으로는 Tokyo Inst. of Tech.의 Tadashi Fukao 교수를 통하여 일본 산학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제학술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관례로 염려되는 점도 많았지만 모두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ISPE'89가 종료되고 한동안 풀린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ISPE'92가 추진되었다. 경험이 한번은 있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였다. ISPE'92는 대한전기학회 주최로 한국과학재단, DFG(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IEEE Korea Section의 협력하에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DFG의 협조를 받아 독일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차 국제적인 성격을 넓히기 위하여 미국 및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3. 위원회의 구성

ISPE'92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개최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1991년 위원회의 조직을 정식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행사장소로는 여러 호텔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ISPE'89와 같이 웨라튼워커힐 호텔로 결정하였다. 황영문 교수를 대회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명단은 표1과 같다.

Table 1. Symposium Committee

General Chairman	Young-Moon Hwang	Pusan National Univ.	Hak-Young Sunwoo	Dong-Il Electric Co.
Hwang			Jong-Soo Won	Seoul National Univ.
ORGANIZING COMMITTEE			Secretaries	
Chairman			Se-Jin Seong	Chungnam National Univ.
Kwang-Bae Kim	KIST		Soon-Chan Hong	Dankook Univ.
Co-Chairman			TECHNICAL PROGRAM COMMITTEE	
D. Schröder	TU München		Chairman	
Inspector			Myung-Joong Youn	KAIST
Chang-Yop Park	Yonsi Univ.		Vice Chairman	
Chang-Sub Lee	Korea Nucler Fuel Co.		Yoon-Ho Kim	Chung-Ang Univ.
Eun-Woong Lee	Chungnam National Univ.		Members	
Jang-Gyu Lee	Seoul National Univ.		Kyu-Bok Cho	Hyosung land. Co,
Honorable Member			Yearn-Ik Choi	Ajou Univ.
Min-Ho Park	Seoul National Univ.		H. Grotstollen	Univ. of Paderborn
Young-Moon Park	Seoul National Univ.		H. Gruening	ABB Corporate Research
Advisory Members			Sae-Hee Han	Hyosung Ind. Co.
Yon-Tack Chung	Myung-ji Univ.		Joachime Holtz	Unic. of Wuppertal
Han-Sung Kim	Konkuk Univ.		Yong-Ha Hwang	E-Hwa Elec. Ind Co.
Choong-Kyu Park	Soong-sil Univ.		Hans Kahlen	Univ. of Kaiserslauern,
Young-Soo Seo	Myong-Ji Univ.		Atsuo Kawamura	Yokohama Nat. Univ.
Byung-Do Yoon	Chung-Ang Univ.		D.J.Kim	Samsung Electronics Co.
Chul-Ro Yu	Chon-Buk National Univ.		Seong-Hwan Kim	POSCO Electric Control Co.
Members			Key-Young LIm	GoldStar Ind. Sys. Co.
U-Hi Ahn	KERI		Hee-Jun Lee	Tae-Il Automatic Control Co.
Jin-Ho Bae	Yeung-Nam Univ.		Mutsuo Nakaoka	Kobe Univ.
Ho-Hyun Choi	Goldstar Ind. Sys. Co.		Soo-Hak Oh	Dong-Ah Electric Co.
Hee-Young Chun	Korea Univ.		Hong-Woo Rhew	KEPCO
Seuk-Young Hwang	Dankook Univ.		R. Schönfeld	Dresden Technical Univ.
Dal-Ho Im	Hanyang Univ.		D. Silber	Univ. Bremen
Chung-Han Kim	Hysung ABB Co,		A. Steimel	Rhur-Univ. Bochum
Dong-Sang Kim	Leechun Electric Mfg. Co.		Michael Voits	ABB Antriebstechnik
Eun-Bae Kim	Dankook Univ.		H. Weh	Technische Univ. Brauns-chweig
Dal-Hae Lee	Yeung-Nam Univ.		MANAGEMENT COMMITTEE	
Jong-Geun Lee	KEPCO		Chairman	
Jong-Ha Lee	Chung-Buk National Univ.		Choong-Ki Kim	KAIST
Kyeong-seop Park	Hyosung Ind. Co.		General Affairs	
Sang-Hui Park	Yonsei Univ.		Gyu-Ha Choe	Konkuk Univ.
Sang-Kee Park	KEPCO		Ick Choy	KIST

Treasurer

Se-Jin Seong Chungnam National Univ,
Jae-Ho Choi Choong-Buk National Univ.

Publication

Kwang-Won Lee Ajou Univ.
Seung-Gi Jeong Kwangwoon Univ.

Program/Publicity

Yang-Mo Kim Choongnam National Univ.
Uk-Youl Huh In-Ha Univ.

Registration

Gwi-Tae Park Korea Univ.
Ji-Yoon Yoo Korea Univ.

Social Arrangement

Soo-Hyun Baek Dong-guk Univ.
Seung-Ki Sul Seoul National Univ.

Information/Local

Dong-Seok Hyun Hanyang Univ.

Arrangement

Gyu-Hyeong Cho KAIST

Members

Deug-Keun Cha Donggeui Univ.
Soo-Hynu Choi KIER
Tae-Won Chun Uil-San Univ.
Kyung-Hee Han Myong-Ji Univ.
Soon-Il Hong Pusan National Inst. of Tech.
Sung-Kwang Huh KEPCO
Hee-Jong Jeon Soong-Sil Univ.
Ki-Yeon Joe KERI
Cheol-U Kim Pusan National Univ.
Dong-Hee Kim Yeung-Nam Univ.
Heung-Geun Kim Kyung-Buk National Univ.
Kook-Hun Kim KERI
Soon-Kurl Kwon Kyung-Nam Univ.
Yo-Hee Kim KERI
Young-Nam Kim Hyundai Electrical Eng. Co.
Young-Seok Kim In-Ha Univ.
Jae-Ho Seo Won-Kwang Univ.
Chung-In U Dong-A Univ.
Chun-Sik Yu Naval Academy

4. 행사진행

1992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동안 웨라톤위

커퓌에서 관련분야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개최된 ISPE'92는 많은 참가자들이 질높은 논문들을 발표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Welcoming Party

4월 8일 저녁 6시 워커퓌 로즈룸에서 개최된 Welcoming Party는 행사진행을 위하여 각 Session의 Chairman과 행사요원들이 참석하여 제반협의를 이루어졌으며 총 29명이 참가하였다.

2) Opening Ceremony

4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행사의 서두로 열렸으며 황영문 대회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환영사에 이어 12시까지 개최된 Plenary Session에서는 표 2와 같은 내용들이 많은 참석자들의 경청속에 진행되었다.

3) 논문발표

명월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부터 각 Session별로 이틀간의 논문발표를 시작하였으며 발표된 논문은 총 73편으로 국내 43편, 독일 15편, 일본 11편, 미국 3편, 호주 1편으로 5개국이 참가하였다. 각 Session별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4) 전력전자연구회 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현 여건상 별도로 국내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제 13회 춘계 전력전자연구회 총회및 학술연구발표회가 10일 오후1시 20분부터 개최되었다. 총회는 한국과학원의 조규형 총무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간사장으로는 명지대학교의 한경희 교수가 선출되었다. 총회후에는 9편의 논문이 성황리에 발표되었다.

5) Reception

10일 오후 Session이 끝난후 7시부터 참가자를 위한 Reception이 Sunflower room에서 열렸다. 김광배 조직위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Reception에서는 발표장에서 못다한 토론도 하고 상호간의 인사도 이

Table 2. Plenary Session

10 : 00 a.m.-12 : 00p.m., Thursday, April 9 Cosmos Room
Evolution in Power Electronics D. Schröder,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Power Electronics in Korean Industry Ki Seul Seung, Goldstar Instrument and Electric Co. Cut and Paste of Electricity-State of the Art of Power Electronics Fukao Harashima, University of Tokyo

루어졌다. 또한 중앙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민속공연이 열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6) Tour

11일 토요일에 실시된 Tour는 삼성전자(주)의 협조로 9시에 워커히를 출발하여 삼성전자를 견학하였다. 견학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에 있는 코코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용인민속촌을 관람하였다.

5. 참가자 및 발표논문

본 회의에 등록된 참가자는 400여명으로 70% 정도가 일반회원, 30% 정도가 학생회원이었으며 이번 에 실시한 예비등록제를 이용한 참가자가 56%였다. 독일측에서는 ISPE'92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의 D. Schröder 교수등 15명이 참가하였고, 일본에서 Okayama Univ.의 H. Akagi 교수등 12명이, 미국에서 VPI&SU의 F.C. Lee 교수와 Texas A&M Univ.의 M. Ehsani 교수가 참가하였다.

6. 행사진행경비

행사진행을 위한 경비는 학회보조금, 전력전자연

구회 이월금, 업체협찬금, 과학재단 지원금, 등록비 등으로 충당되었으며 약간의 흑자를 낼 수 있었다. 잉여금은 다음 ISPE'95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 글을 빌어 한국과학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신 한국전력, 금성산전, 금성계전, 금성기전, 서호전기, 화인전자, 이화전기, 이천전기, 코오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제철전기콘트롤, 파워트론, 태일자동제어, 효성중공업, 동명전기, 한국산업서비스, 현대중전기, IEEE Korea Section의 협조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7. 행사소감

정신없이 행사를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보니 전력전자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향상된 논문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경청하였으며 행사진행도 별 무리가 없었음에 미루어 보아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소한 실수가 일부 있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행사를 위하여 몇가지 느낀 점을 적어본다.

1) 외국참가자와의 보다 원활한 연락이 있어야겠다.

Table 3. Technical Session

Date	Room	Sessions	Papers
Thursday, April 9 1:20 p.m. -5:40 p.m.	Azalea	Session 1: Power Devices and Their Applications(I)	7
	Camellia	Session 2: Power Converters(I)	8
	Cosmos	Session 3: AC/DC Machine Drives(I)	8
	Rose	Session 4: Industrial Power Conversion Systems(I)	7
Friday, April 10 9:30 a.m. -12:20 p.m.	Azalea	Session 1: Power Devices and Their Applications(II)	4
	Rose	Session 6: Power Converters(II)	5
	Cosmos	Session 7: AC/DC Machine Drives(II)	6
	Camellia	Session 8: Modern Control Techniques(I)	6
Friday, April 10 1:20 p.m. -5:40 p.m.	Cosmos	Session 9: AC/DC Machine Drives(III)	7
	Rose	Session 10: Industrial Power Conversion Systems(II)	8
	Camellia	Session 11: Modern Control Techniques(II)	7
	Azalea	제 13회 춘계 전력전자연구회 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9

일례로 본 행사에 참가하는 독일측 인사들은 DFG가 왕복항공료를 부담하고 한국과학재단이 호텔 숙박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독일측에서는 호텔에서 모든 비용을 한국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동경대학교의 F. Harashima 교수가 보내온 원고는 OHP원고 형식이어서 부득이 별도로 첨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최측과의 연락미비는 아니지만 Univ. of Wisconsin의 D.M. Divan 교수는 인도여권소지자로 비자관계때문에 입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2) 모든 행사를 program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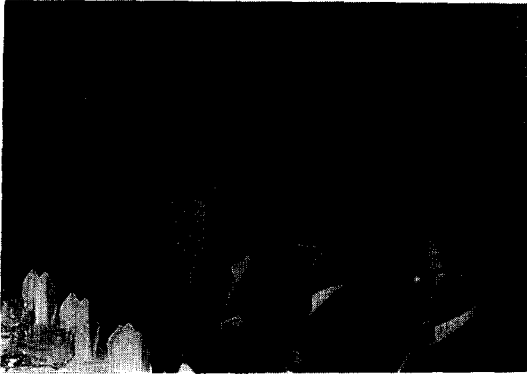


사진 1. Welcoming Party. 집행위원장 김충기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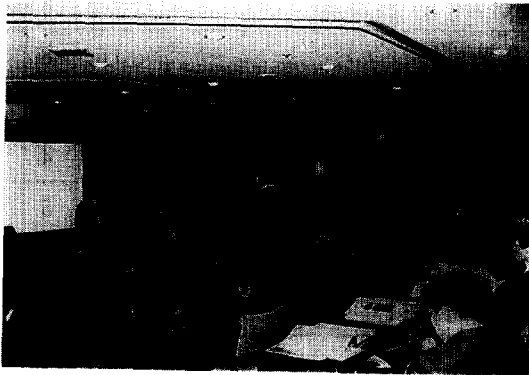


사진 2. 논문발표장면.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F.C. Lee교수가 논문발표후 질문을 받고 있다.

Welcoming party 에는 Session chairman을 맡은 외국인도 전부 참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를 전체참가자들의 행사가 아닌 관계로 Advance program에 명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였는데 일부 인사가 이를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결과를 빚었다. 앞으로는 Welcoming party 대신에 행사당일 아침에 Session chairman과 논문발표자들이 참석하는 Author's breakfast를 갖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사진 3. 중앙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민속공연. 한 외국인의 공연내용 설명요구에 한국인인 나도 잘 몰라서 쩔쩔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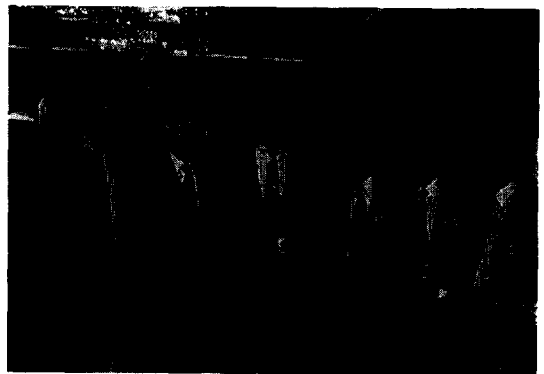


사진 4. 리셉션 기념촬영. 좌로부터 필자, 박민호교수, Texas A&M Univ.의 M. Ehsani교수, 황영문 대회위원장, 중앙대 김윤호교수, 김광배 조직위원장.

- 3) Program을 대회 임박해서 한번 더 발송할 필요가 있었다. 전기학회지를 통하여 계속 공고를 게재 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본문만을 보고 나머지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Advance program을 2주전 정도에 발송 하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4) 발표장에 여분의 마이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Session chairman과 발표자용 마이크 이외에도 질문용 무선마이크가 필요함을 느꼈다.
- 5) 국내 학술발표회 논문의 처리는 계속 숙제로 남는다. 89년에는 별책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에는 국내용의 경우에는 합본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상이 아니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논문집 뒷편의 광고는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 6)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물론 논문발표시에는 그러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으나 Reception시에 민속공연에 귀기울이는 사람이 극소수이어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었다. 또한 마지막 날 Tour시에는 삼성전자에서 두 대의 버스를 보내왔음에도 38명만이 참가하여 결례를 범하였다. 물론 지방에 거주하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사중에 Tour 참가여부를 신청받아 그결과 버스 두 대를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원이 적었던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 7) 대회명칭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89년에는 상대



사진 5. 리셉션중 담소, 김광배 조직위원장과 한국파 학재단 권원기 사무총장이 환담하고 있다.



사진 7. 삼성전자 견학. Schröder교수등 독일측 인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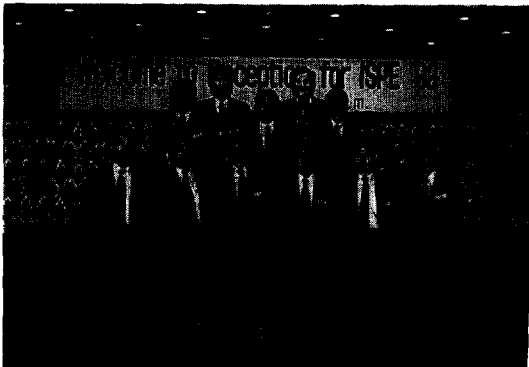


사진 6. 주행사를 마치고 나서 늦게 남은 몇몇 사람이 모여 기념촬영.



사진 8. 민속촌 관람. 곤장을 든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파안대소이다.

방인 일본이 같은 동양권이어서인지 그런 혼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측에서 Symposium이란 용어 때문에 전혀 Conference로 생각하지 않고 내한한 것 같았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아직 규모가 작긴 하지만 Conference가 맞지 않을까 싶다.

8) 사진촬영에 있어 중요장면은 대형사진기를 사용하든지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을 쓰면서 중요행사장면을 실으려고 보니 중요한 장면이 빠지기도 하고 적은 사진도 선명도가 낮은 것이 많았다. 사진촬영을 한 행사요원이 나름대로 고생하였음에도 아마추어가 소형사진기로 기록을 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8. 맺음말

생각나는 대로 몇 줄 적어보았다. 이 글을 쓰면서 행사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정식 전체회의만도 17차례나 열렸고 대회 임박해서 석달 동안은 매주말을 봉사하였다. 칠십 고령이심에도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하시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민호 교수님, 부산에서 매주 상경하시어 행사전반을 체크하신 황영문 교수님, 조직위원장으로 대외교섭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으셨던 김광배 실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두 ISPE 사이에 전력전자연구회 간사장이셨던 전북대 유철로 교수님, 명지대 서영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두들 열심히 해주셨다. 기술위원장으로 Opening ceremony의 사회까지 맡으셨던 윤명중 교수님도 고생하셨고 논문의 접수 및 편집과 민속공연을 주선한 김윤희 교수님도 쉼이 없었다. 그리고 각 Session의 진행을 맡은 Chairman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항상 넉넉한 웃음으로 사람을 푸근하게 하셨던 운영위원장 김충기 교수님도 바쁜 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셨다. 또한 총무로써 안살림을 도맡았던 건국대 최규하 교수님, KIST 최익 박사님의 수고는 그중 으뜸이었고 재무로써 한국과학재단 섭의를 맡았던 충남대 성세진 교

수님, 돈 관리로 흰머리가 좀 늘었을 충북대 최재호 교수님도 고생하셨고 논문집의 출판과 포스터 도안, 인쇄를 맡았던 광운대 정승기 교수님도 체중증 줄었을 것이다. Reception의 사회를 보고 Tour시 안내를 맡았던 서울대 설승기 교수님은 점심식사장소를 물색하려고 부부동반으로 수원으로 가서 시식까지 하였다. 코큰 사람이 시식한 맛이니 서양사람들도 음식맛에는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행사당일 등록이 매끄럽게 한 고려대 박귀태, 유지윤 두 교수님과 독일에 갔다는 죄로 독일과의 연락 업무를 책임진 한양대 현동석 교수님도 고생하셨고 수원에서 회의 때마다 꼭 참석하시고 Tour시 점심식사 예약도 해주신 아주대 이광원 교수님도 수고하셨다. 또한 엉겁결에 차출당해 수고하신 인하대 허옥열 교수님과 회의시에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내놓곤 하시던 동국대 백수현 교수님도 고생하셨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수고하셨는데 행사보조원으로 봉사한 건국대와 고려대 전기공학과 대학원생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ISPE'92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3년후에 열릴 ISPE'95를 기획할 단계인 것 같다. 두번의 경험이 있으므로 행사진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고 참가국도 더욱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국제학술회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ISPE'92의 총 재정규모는 5000여만원이며 이중 1/3을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하여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어떻게 하면 보다 수준 높은 국제학술회의를 우리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다.



홍순찬(洪淳瓊)

1950년 2월 24일생. 1973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5년 동 대학원 졸업. 1975~78년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교관. 1986~87년 미국 Texas A & M Univ. Visiting Scholar. 현재 단국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공박. 당학회 편집위원.